



정읍초등학교 정어와오비  
Jeongup Elementary School

푸른 꿈을 열어가는 즐거운 정읍초등학교

## 9 월 상 담 소 식

담당 : 상담실

문의 : 070-4705-6375

배부, 홈페이지 게시

더위가 한풀 꺾이고 설레는 마음으로 2학기를 맞이하는 9월, 활기찬 아이들의 모습에 학교에도 웃음꽃이 가득한 나날입니다. 학부모님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방학 동안 충분한 휴식을 통해 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면, 2학기에는 나를 넘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로 시선을 넓혀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는 가족, 이웃, 친구와 같은 수많은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소년기 시절의 아이들이 뽑는 중요한 타인은 ‘친구’였는데요. 한 학기 동안 나와 희로애락을 나눴던 친구들을 만났다면 이제는 자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시다.

〈마음 하나〉 9월호 상담 주제

## ‘나의 친구 관계 이해하기’

### 〈진정한 친구란?〉

먼저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친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잠시 눈을 감고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친구’는 누구일지 생각해보아요. 이제 눈을 뜨고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친구가 누구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떠올린 중요한 친구는 분명 좋은 친구라 생각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친구란 무엇인지 정의해 보고, 다른 사람들은 ‘친구’에 대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것과 비교해보고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나누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친구란 무엇일까?♥

진정한 친구란 \_\_\_\_\_이다.

왜냐하면 \_\_\_\_\_이기 때문이다.

예시) ‘진정한 친구는 이불이다. 왜냐하면 이불처럼 따뜻하고 편안하기 때문이다.’

[뒷장 계속]

## 〈관계 고리 만들기〉

이번 활동은 ‘나의 친구 관계유형’을 들여다보는 활동입니다. 개학을 하면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는데요.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나의 친구 관계는 어떠한지, 이해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제게는 진짜 친구가 없어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크게 네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끈끈이’, ‘친한이’, ‘공일이’, ‘아는이’입니다. 아래의 그림을 통해 쉽게 알아볼까요?



친구의 유형 ‘끈끈이’, ‘친한이’, ‘공일이’, ‘아는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표를 보고, 나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 작성해봅시다.

<b>끈끈이</b>	가장 친한 단짝 친구. 거의 매일 만나고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으며 이런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외롭단 느낌이 들지 않는 친구
<b>친한이</b>	끈끈이만큼 친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뜻이 잘 맞아서 함께 있으면 좋은 친구
<b>공일이</b>	끈끈이나 친한이 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한 흥미를 가지고 있고, 같이 공부하거나 함께 놀 때 어색하지 않은 정도의 친구
<b>아는이</b>	그냥 얼굴을 아는 정도, 이름을 아는 정도로 동아리나 학원 등에서 함께 있지만 내 속마음을 나눌 정도로 친하지는 않은 친구

[뒷장 계속]

✓ 네 가지 친구 유형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잘 생각해 적어주었나요?

다음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볼까요?

- 끈끈이와 친한이는 몇 명인가요?
- 공일리와 아느리는 주로 어디서 만나는 친구들인가요?
- 나의 친구 중에 끈끈이는 몇 명인가요?

✓ 나의 친구 관계유형을 보며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많고 적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끈끈이가 몇 명이나 있나 생각해 보는 것으로도 나의 친구 관계에 대해 알 수 있어요.

- 나의 친구 관계에 만족하나요?
- 점수로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 만약 만족하지 못한다면 어떤 점에서 만족스럽지 않은가요?

내가 떠올린 끈끈이 친구들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끈끈이 친구들의 장점을 배울 수 있고, 다른 친구에게 내가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친구 중에 끈끈이가 몇 명이나 되어야 좋을까요? 사실 끈끈이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으면 내 몸이 열 개가 아닌 이상 친구 관계를 맺어나가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끈끈이가 딱 한 명만 있다면요? 외톨이가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될 수 있지만, 나를 알아주고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친구 문제에 옳고 그른게 어디 있겠니,  
옆에 늘 있어주면 그게 좋은 친구지 뭐,

- <스폰지 밥> 중에서 -

출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솔리언 또래 상담교육  
- <https://cus0427.tistory.com>: 진정한 친구란- 친구관계- 고리만들기  
- <https://walkingwithus.tistory.com/> 함께 걷는 아이들 공식 블로그

2021년 9월 15일

정 읍 초 등 학 교 장